"나는 미혼모입니다."

- 내 아이에게는 행복만 주고 싶다는 이수지(가명)님의 이야기-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예쁜 아이. 30대 중반, 어리지 않은 나이였기에 이수지(가명)님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이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아이를 지우기로 결심했던 이수지님은 병원에서 아이의 심장소리를 듣게 되자 차마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부모님마저 자신의 딸이 미혼모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지만 젖먹이 아이를 생각하면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미혼의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아이에게 행복만을 주고 싶다는 이수지님의 바람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수지님의 양육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미혼 가정의 아이들의 양육과 생계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